



# 소아당뇨 캠프의 현황과 문제점

소아당뇨캠프란 당뇨병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로서 1925년 미국디트로이트의 **웬트라는 의사에 의하여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미국 당뇨병학회캠프위원회가 제시한 당뇨어린이를 위한 **캠프의 목적은** 첫째 재미있는 오락을 경험시키는 것이며 둘째 어린이들이 가정을 떠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 셋째 당뇨병을 가진 어린이들만으로 공동생활을 시키는 것, 넷째 어린이들이 병에 대한 바른 지식

을 배워 당뇨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것, 다섯째 부모를 캠프기간중 번거로운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상 다섯가지로 되어 있다.

## 자신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배양

대체로 당뇨를 가진 어린이들은 병의 관리상 욕구의 절제, 생활의 불편이 요구되므로 절망감, 병에 대한 혐오감, 장애에 대한 두려움, 고독감등을 느끼게 되고 학교생



**최상전**

(지방공사 강남병원 · 내과)

---

성공적인 캠프의 경험은

---

자신이 당뇨병을 관리할 수

---

있는 능력을 배양해

---

스스로가 문제를

---

해결할 수 있는 독립심과

---

자긍심을 느끼게

---

한다.

---

활에서 남들과 다른 행동(인슐린주사, 저혈당의 경험등)을 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고 위축된 생활을 하기 쉽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불쌍한 감정때문에 과잉보호를 하기 쉬워 의존적인 성격을 길러주기 쉽다. **성공적인 캠프의 경험은 자신이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또 다른 어린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해서 독립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긴장감과 우울증을 해소시켜** 주기도 한다. 즉 당뇨병을 가진 어린이들만이 모여서 생활하므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캠프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운동을 장려하며 적절한 인슐린량의 조정과 식사량의 조정, 저혈당에 대한 조치로서 어떤 운동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킨다. 이처럼 캠프는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교육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어린이들에게 주는 심리적효과는 매우 큰** 것이다. 또한 부모들의 입장에서



는 어린이들을 보살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잠시나마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 세계24국에서 소아당뇨캠프 운영

1979년 국제 당뇨병 연맹(IDF)에서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24개국에서 소아당뇨어린이를 위한 캠프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며 1983년 현재 미국내에 69개의 캠프가 운영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뉴욕 당뇨병 학회(NYDA)의 캠프장은 뉴욕으로부터 136km 떨어진 Catskill산의 기슭에 250에 이어나 되는 광대한 부지를

가지고 있다. 숙사, 홀, 운동장, 교실, 극장, 영화관, 자연 박물관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의사2명, 간호사7명이 상근하고 있다. 캠프기간중에는 뉴욕으로부터 40명의 의사가 와서 협조하고 있다. 총경비는 약 1억 4천만원(1971년)으로서 어린이 1인당 경비는 4주만에 약 40만원정도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1963년에 처음으로 동경에서 소아당뇨캠프가 열렸고 1984년 현재 10여개의 여름캠프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어린이들을 위한 소아당뇨캠프의 효시는 1986년에 시작된 건강캠프이다. 뜻있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사업가등이

팀을 이루어 경기도 일산 YMCA 수련장에서 4박5일간 20여명의 국민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소아당뇨인을 대상으로 캠프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경인지역에서 장소를 바꾸어 가며 해마다 여름캠프가 열려 금년에는 제5회를 맞게 되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시작이 늦기는 했으나 가까운 장래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외국에 비하여 볼 때 우리의 캠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아직까지 캠프운영상의 미비점 산재

첫째 상설캠프장이 없다는 것이다. 캠프장의 설비는 침실, 식당, 주방외에 레크리에이션홀, 옥외레크리에이션장소, 등산이 가능하고 수영시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의료처치실 및 1차구급설비가 꼭 있어야 하며 응급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행락객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캠프장을 구하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다. 주변환경이 좋으면 시

설이 문제가 되고 시설이 좋으면 환경이 문제가 된다. 또 주방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향후 상당기간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언젠가는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캠프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간 및 내용에 있어서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캠프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캠프기간**은 미국에서는 2주 내지 4주간으로서 **최소한 2주정도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주일(6박 7일)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캠프에서 캠퍼들이 내는 참가 비용은 총경비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금

액은 독지가, 각종단체, 의료기관등에서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나 매년 기금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참가자의 비용이 미국에서처럼 40~5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현재의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장기적인 캠프운영을 생각한다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사회공익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셋째 캠프의 운영방침이나 교육방침이 아직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1987년 말 소아당뇨캠프위원회가 발족하여 계속적인 캠프의 경험을 축적, 연구노력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관하여는 향후 여

우리나라에 산재돼 있는  
 캠프운영상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소아당뇨인에 대한 뜻있는  
 분들의 자원봉사 정신이 존재하는  
 한 소아당뇨캠프는 계속 유지,  
 발전할 것이다.



러개의 다른 캠프위원회가 생겨나 많은 캠프가 운영된다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캠프의 운영스태프진들의 활동이 전원 자원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름캠프에 참가하는 스태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휴가를 할애하여 참가하고 있다. 대체로 1명의 캠퍼당 1명의 스태프가 필요한데 참가스태프의 수가 제한되므로 많은 캠퍼를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또 캠프기간을 늘릴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

에 점점 캠프에 참가하고자 하는 당뇨어린이는 증가하는 반면 수용능력은 제한되어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나 이에 관하여는 대형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요망된다.

다섯째 캠프가 경인 지역에서만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어린이들의 관심도 대단하여 1989년 제4회 캠프에는 몇몇 지방, 특히 부산지역에서도 참가한 캠퍼가 있으나 앞으로 전국 여러곳에서 많은 캠프가 열릴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망된다.

##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절실

소아당뇨캠프는 아직까지는 초창기이며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소수의 뜻있는 분에 의하여 계획되고 운영관리되어 왔고 일반의사나 사회에 계몽활동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캠프를 기회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와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아당뇨인에게 용기를 주려는 뜻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정신이 존재하는 한 소아당뇨캠프는 면면히 지속, 발전할 것임을 확신하며 더 많은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㉔